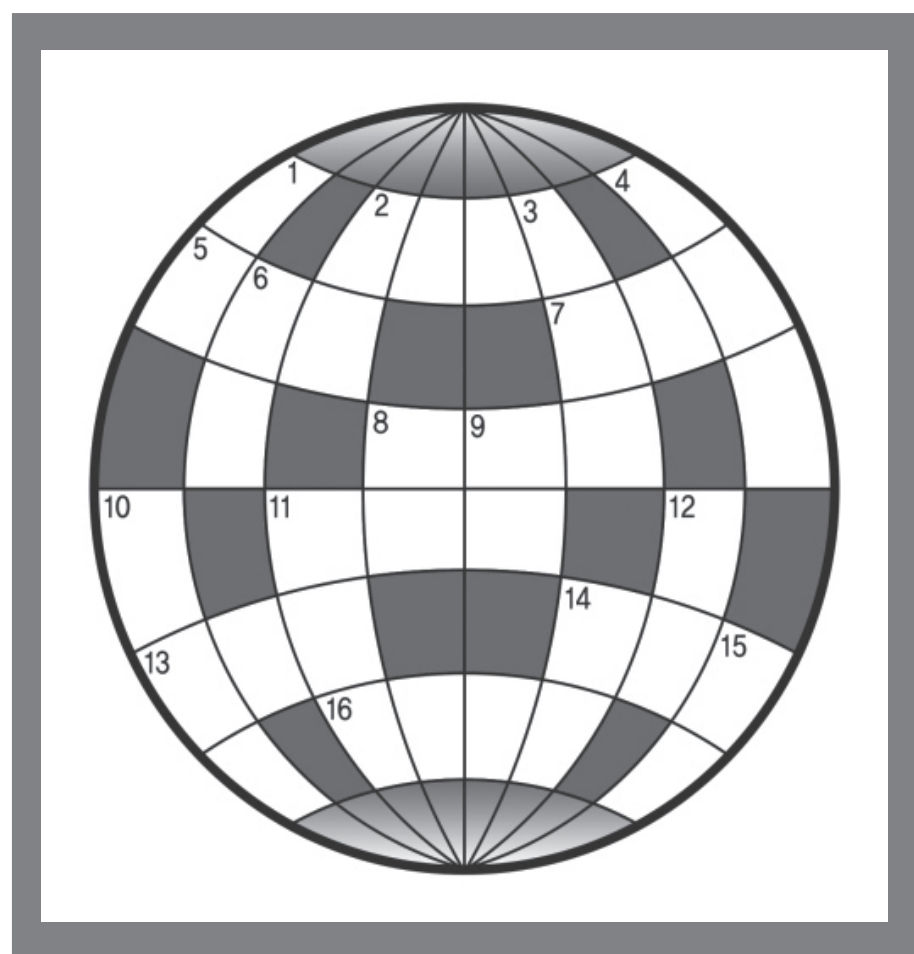


{ 심심풀이 낱말풀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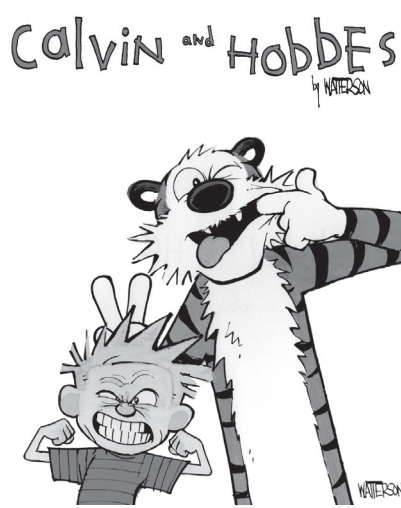
<가로 열쇠>

- 2)어떤 일을 함에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음. ○○○○ 학업에 정진하다.
- 5)둥글게 생긴 꼭대기의 가운데를 눌러서 쓰는, 행이 둥글게 달린 모자.
- 7)남의 시킴이나 부탁을 받고 그 일을 대신 함. ○○○을 시키다.
- 8)같은 경작지에서 작물을 일 년에 두 번 재배하는 방법.
- 11)오늘의 아재 개그, 무더운 여름날, 바닷가에서만 해도 되는 욕은?
- 13)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안목. 그는 동양화에 대한 남다른 ○○○을 가지고 있다.
- 14)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 갑자기. 난데없이.
- 16)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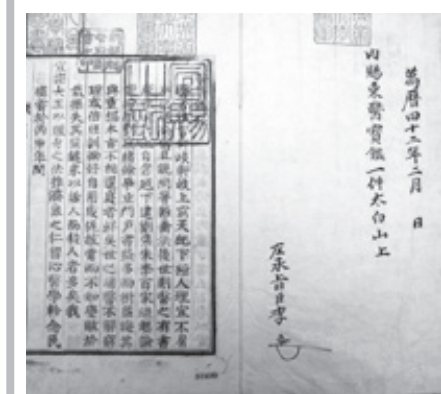
<세로 열쇠>

- 1)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
- 2)땅이 메말라 식물이 자라지 않음. ○○의 땅.
- 3)새로운 시도를 하여 큰 성과를 기대하는 작품. 일생일대의 ○○○을 내놓다.
- 4)피부가 노화하여 생긴 잔줄.
- 6)사람의 힘으로 곡식을 뺏거나 쪼으며 떡을 치기도 하는, 속이 우묵한 나무나 돌로 만든 통.
- 8)차레를 밟아 학과를 공부하여 마침. 교직 과목을 ○○하다.
- 9)업신여겨 욕되게 함.
- 10)일반 국민 가운데에서 선출되어 재판의 심리에 배석하여 참여하는 사람.
- 11)바다와 육지가 맞닿아서 길게 뻗은 선.
- 12)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문인은 모름지기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한 걸음 앞서 시대를 예견하는 ○○을 갖고 있어야 한다.
- 14)외모나 성격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 닉네임.
- 15)환자나 노약자 등을 보살피 돌봄.

정답은 B면 11페이지에..



오늘의 역사 (2009년 7월 31일)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2009년 7월 31일 조선시대 어의 허준 주도로 편찬된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東醫寶鑑)이 한국의 7번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됐다.

31일(한국시간) 중앙아메리카 바베이도스 수도 브리지타운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9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이 지난해 3월

등재 신청한 동의보감 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의 두건을 시작으로 지지삼체요절과 승정원일기(이상 2001년),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조선왕조의궤(이상 2007년)에 이어 모두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등재가 결정된 동의보감 판본은 1613년(광해군 5년), 편찬 총책임자인 허준 자신이 직접 간행에 관여해 나온 초판어제본(初版御製本)으로, 국립중앙도서관(오대산사고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적상산사고본)에 각각 소장돼 있다. 이들은 보물 제1085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유네스코가 199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년마다 등재 유산이 정해진다.

2007년 7월 기준으로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67개국 158건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슈베르트 악보 모음집', 미국 영화 '오즈의 마법사', '카리브해 노예 기록물' 등이 있다.

사진설명: 보물 제1085호 동의보감.

그해 오늘 무슨일이...(7월 31일)

- 2015년 '자본론' 최초 완역 김수행 교수 별세
- 2009년 한국형 첫 기동헬기 '수리온' 출고식
- 2009년 '가고파' 작곡가 김동진 선생 별세
- 2002년 장상 총리서리 국회 인준동의안 부결
- 2000년 산악인 엄홍길,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좌 완등
- 1995년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용길씨 판문점 귀환 구속
-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서 30여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 개최
- 1992년 신항주대교 공사중 붕괴
- 1991년 국산 대형컴퓨터 개발계획 확정
- 1991년 미소정상회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조인
- 1987년 메카 유혈사태. 이란인 순례자 400명 사망
- 1980년 계엄사령부,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혐의로 기소
- 1980년 문공부, 정기간행물 172개 등록취소
- 1972년 한국남자배구 뮌헨올림픽 아시아예선서 북한 제압
- 1965년 한일조약 비준 저지를 위한 '조국수호국민협의회' 결성
- 1964년 미국 레인저6호 달표면을 촬영한 4316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
- 1962년 정부, 언론정책 시행기준 10개 항목을 발표
- 1961년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3개국회의, 동남아연맹(ASA)설립 발표
- 1959년 조봉암 사형집행
- 1958년 소련 흐루시초프, 중국을 방문 모택동과 회담

Quote 영어 문장을 완성하라

Rearrange the words below to complete the quotes.

ABOUT BEAUTY COMFORTABLE LIPSTIC ME OWN RED SKIN

" ____, to ____, is ____ being ____ in your _____. That, or a kick=ass _____."

-Gwyneth Paltrow (1972-) Serbian basketball player정답은 '이주의 영어한마디'

이주의 영어 한마디

마스크의 익명성,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



문제는 이런 남성들의 음란하고 집요한 눈길(lustful and pertinacious gaze)이 단지 여성들을 불쾌하게(feel unpleasant)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위협감을 준다라는 (be intimidating) 사실이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잔뜩 겁을 먹게 한다(scare the daylight out of them). "마스크를 쓴 채 뻔히 쳐다보면(stare you with a mask on) 그냥 민얼굴로 그럴 때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

코로나19 전염 예방(prevention of COVID-19 transmission)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be routinized)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give rise to unexpected side effects). 그중 하나는 일부 남성의 여성들을 음탕한 눈길로 집요하게 쳐다보는(persistently give women a lecherous look) 행위가 잦아졌다는 것이다. 마스크가 얼굴 절반 이상을 가려줘 신원을 노출할(expose their identities)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노골적으로 뻔히 훑어보기도(flagrantly stare them up and down) 한다.

뜻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의 제목은 의도했든 안 했든 세 가지 어감을 모두 함축하고(embrace all the three connotations) 있는 셈이다.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면서(become commonplace) 여성에 대한 남성의 위협적 행위(threatening behavior)가 늘어나고 있다. 예비근복을 입으면 태도가 돌변하듯, 마스크가 제공하는 익명성(anonymity masks provide)도 자세를 흐트러뜨리기(lose their postures)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장소·대중교통(public places and public transport)뿐 아니라 거의 모든 밀폐된 장소(enclosed areas)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become compulsory) 여간해선 주변 사람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 그런 익명성이 자신의 신원을 감춰주니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be conscious of others' eyes) 않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take to social media to share their experiences) "남자들은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나. 눈도 가려진 걸로 착각하는지(delude themselves) 이리저리 굴러댄다(roll their eyes)"고 비아냥댄다. "마치 아이언맨이 철갑 옷 두른 듯 능력과 힘이 더 강해진 것으로 느끼거나 보다(feel more enabled and empowered). 열등감(inferiority complex) 있는 남성들이 자동차 안의 익명성에 몸을 숨기고 난폭 운전 하는(drive recklessly) 것이나, 마스크에 얼굴 감추고 일탈 행위(deviant behavior)를 하는 것이나 도근개간"이라고 혀를 찬다(clack the tongue).

Answers: "Beauty, to me, is about being comfortable in your own skin. That, or a kick-ass red lipstick."